

주장사파라...

⑬ 금오 스님의 '출국증명서'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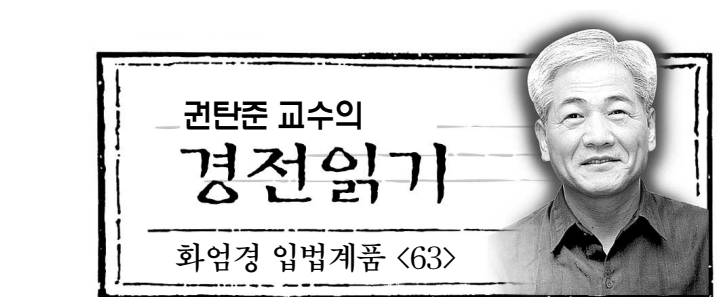


금오 스님 (1896~1968): 전남 강진 생. 16세에 월정사서 득도. 직지사·쌍계사 등서 조질을 지냈으며 1955년 조계종 부종정에 추대됐다. 1954년 이후 '정화'에 주력했다.

선재동자는 선지증에동자로부터 마가다국의 한 부락에 있는 바다나라라고 하는 성(城)에 살고 있는 현승(賢勝)우바이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현승우바이를 찾아가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틈은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다. 이미 스스로 깨우쳐 알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한다. 또 다함이 없는 삼매를 얻었으니 저 삼매의 법이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눈을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귀를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코를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혀를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몸을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뜻을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공덕파도(功德波濤)를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지혜 광명을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빠른 신통을 밝히 다함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의지할 곳 없는 도량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의 모든 것에 집착이 없는 공덕의 행이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는가."

현승우바이가 설하고 있는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無依處道場)'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에 관한 법문은 보살의 깨달음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현승우바이의 법문

경계 없는 청정함으로 덕(德) 나타내 육근 지혜롭게 다스려 깨달음 실현

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청정한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켜 훌륭한 덕(德)을 무량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설하고 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인 '바다나'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 '둥글다(圓)'고 하는 의미인데, 그녀가 덕을 원만하게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현승(賢勝)'인 것 또한 이러한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밝은 지혜로써 여러가지 훌륭한 덕을 실현해 보이는 것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라고 하는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법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고, 몸도 또한 의지하는 곳이 없어서 보살행을 행함에 특정한 근본적인 바탕의 모습이 없는 것

도량'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다고 하면서, 또한 '다함이 없는 삼매(無盡三昧)'를 얻었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함이 없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아니라 '의지하는 곳이 없는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함이 없는 삼매는 다함이 없는 변화에 응하는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다함이 없는 삼매는 공(空)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없는 변화에 응하여, 한없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다.

경전에서 '다함이 없는 삼매'를 얻는 법이 온갖 지혜의 성품(一切智性)의 눈·귀·코·혀·몸·뜻·공덕파도·지혜·광명·빠른 신통 등을 다함이 없이 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삼매의 경지로부터 여러가지 신통을 나타내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여러가지 공덕의 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승우바이의 법문을 통해서 청정한 마음의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켜 어떠한 경계에도 구애됨이 없이 항상 깨달음의 세계를 실현해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눈·귀·코·혀·몸·마음의 육근(六根)을 잘 다스려서 항상 지혜롭게 보고 들으며 마음을 기쁘게 해서, 또한 여러가지 공덕을 지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육근으로 온갖 경계에 취하여 재미와 단맛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중생들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여러 경계에 대한 애욕(愛慾)의 마음을 떨치고 육근을 청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림으로써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일체유심조'란?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무슨 뜻인가요? 본래 마음 뿐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식상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D '학인')

답1: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식이라는 개념도, 마음뿐이라는 개념도 모두가 부질없는 달그림자 같은 것. (D '아베중생')

답2: 원효 스님은 "심생즉 종중법생(心生則種種法生)이요, 심멸즉 종중법멸(心滅則種種法滅)이다. 일체(一切)는 유심조(唯心造)요, 만법(萬法)은 유식(唯識)이로다"라고 했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따라 생긴다는 것이다. (D '원효제자')

답3: '일체유심조란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사적(事的)으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쓰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니 자유를 누릴 것이며, 이적(理的)으로 보면 일체는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자기'라고 내세울 실체가 아닌 것이니 고팔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마음만 벗어나면 모든 것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D '성조')

부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37

불립문자(不立文字)-10

우리는 의사전달을 위해서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각종 소리와 기호, 몸짓 등 온갖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한다. 인류가 갖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 크다. 경험과 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대대손손 전달하며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개체, 한 세대가 각자 직접 체험으로 학습하여 얻는 지식만으로 환경에 근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축적된, 그리고 다른 개체와의 의사소통으로 얻게 되는 간접 경험, 간접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뛰어나고 정교한 의사소통 수단은 역시 말과 글이다. 그러나 말과 글조차 완벽한 의사소통을 이루어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였다.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될 것이다. 의사소통의 원천적인 한계는 조금

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과 지식, 언어 습관을 많이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물건을 놓고 얘기할 때이다. 그런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말 그 자체, 글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제와 환경, 맥락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대개 말과 글의 그러한 한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도 그럭저럭 넘어간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말과 글을 적절히 정도보다 훨씬 지나치게 신뢰하고 그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언어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말과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의식에 틀을 지우는 힘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일 터이다.

의사소통 주제·환경 따라 변수

분별 넘어선 체험 전달 불가능

이 정확하게 되기가 어렵다. 특히 세상의 통합성에 대한 내면의 체험, 즉 불이적(不二的)인 체험을 온전히 말에 담아 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어법의 틀 자체가 이미 분별적이기 때문이다. 분별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하는 어법을 구사하여 분별을 넘어서는 체험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주제이다. 언어도단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쓰지만, 위낙은 말의 길이 끊겼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문구는 어불성설(語不成就)이다. 말의 길이 끊겼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함은 곧 분별의 틀을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암자나 교명을 감할하는 스님을 일컫는 말 5. 물건을 사고파는 일 7. 전기시설을 갖추는 일 8. 어떤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큰 규모의 모임 9.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그래프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낸 그림 11. 성(姓)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 13.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선로가 서로 엇갈린 길 14. '말'의 방언 15. 주고받은 16. 어린이의 시기 19. 불법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보시 21. 석유를 연료로 하는 서양식 등잔 23.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24. 단체에 처음으로 가입한 회원 26. 노래 27. 불교에서 생물을 그대어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세로

1. 전기가 통하고 있는 도체(導體)에 물의 일부가 닿아 충격을 느끼는 일 2. 왕성한 원기 3. 스스로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 4. 학문에 힘쓰는 사람 5. 두개의 차를 한 하나로 만든 새마을호 열차를 지칭하는 말 6.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 10. 전하여 줌 13. 아메리카 화생을 교육하는 방법 17. 물에 대하여 아주 단편적인 영혼한 대담 18. 한겨레, 같은 민족 20. 보편사상을 영위하는 회사 21. 남한과 북한 22. 사람의 키만 한 불상 23. 그러나 구리의 합금으로 만든 주화(鑄貨)를 두루 이르는 말 25. 유치원 등 '원형'에 사용되거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